

옛 미쿠니 가도(旧三国街道)

역사 깊은 미쿠니 가도

미쿠니 가도는 한때 혼슈의 내륙부와 혼슈 북서부의 해안 지역을 잇는 변화한 교역과 여행의 길이었습니니다. 현재의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의 해안가 마을인 데라도마리까지, 약 200km에 걸친 길이었습니니다. 도중에는 35개의 역참(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가도의 거점)이 있어 여행자들은 찻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하타고(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새로운 말로 갈아타거나 선박 운송 업체와 계약하여 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년)에는 종교 순례를 위해 방문하는 서민들과 멀리 있는 시장으로 향하는 상인, 에도(현재의 도쿄)로 향하는 다이묘 행렬(다이묘<대영주>가 공식적으로 외출할 때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는 것) 등 많은 사람이 이 가도를 오갔습니니다.



중요한 루트였습니니다.

데라도마리는 미쿠니 가도의 북쪽 종점이자, 호쿠리쿠 지방(현재의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니가타현)의 해안을 동서로 달리는 호쿠리쿠도(통칭명: 홋코쿠 가도, 北国街道)의 역참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미쿠니 가도의 남쪽 끝에 있는 다카사키(현재의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막부의 행정 중심지인 에도와 당시 수도였던 교토를 잇는 다섯 가도 중 하나인 나카센도의 역참이었습니니다. 그래서 미쿠니 가도는 더 먼 대도시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셋타야의 미쿠니 가도

1605년경, 사도 금광에서의 수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에도 막부(당시 일본을 다스리던 무가 정권을 말한다. 현재의 도쿄를 정권의 중심으로 삼았다)가 본격적으로 미쿠니 가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도는 나가오카번이 아니라 에도(현재의 도쿄)를 통치했던 도쿠가와 가문의 보다이지 절(菩提寺, 보리사. 대대로 조상들을 모신 묘가 있으며, 돌아가신 가족의 장례와 법요를 맡기고 있는 절)인 우에노 간에이지 절(上野 寛永寺)의 영지, 셋타야 지구를 지났습니니다.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 행렬은 쇼군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가고 가마(이동 수단 중 하나. 하나의 막대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매달고, 막대기의 앞뒤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이동한다)에서 내려 셋타야의 미쿠니 가도를 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후기 이후의 주택과 도로의 건설로 인해 과거 교역로의 대부분이 자취를 감췄지만, 좁은 골목길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이 지구에 있는 수 세기나 이어져 온 가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셋타야 구역 내 미쿠니 가도의 입구는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과 작은 다케코마 이나리 신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건물 옆에는 약 200년 전부터 여행자들의 수호신인 지장보살 석상이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상은 길잡이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 대좌에는 '오른쪽은 에도, 왼쪽은 산길'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길잡이 지장보살'이라고 불립니다. 이 석조 길을 따라가면 간장과 일본술을 양조할 때 나는 독특한 향기와 발효에 사용되는 누룩곰팡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검게 변한 나무 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니다.

보존되어 있는 미쿠니 가도의 구간은 셋타야 지구의 오랜 역사의 일부를 맡아 온 여러 사적을 따라 이어집니다.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과 요시노가와 주조, 천하감로천의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 곤피라 신사로 이어지는 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